2017 태국 문화체험 결과 보고서

사학과 김기영

1. 참가활동 내용(사진포함 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대학 사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김기영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3박 5일 간 진행된 태국 문화체험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게 적지 않은 양의 깨달음을 주었던 체험들이었습니다. 3박 5일간의 참여활동 내용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술하고 아래의 항목에 이어 순차적으로 느낀 점 위주의 내용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 1일차(1월 8일)

▲ 왓포 사원

첫 번째 날의 일정은 본래 태국 국왕의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그리고 새벽사원을 구경하는 것이 순서였지만, 비행기 시간이 연착되는 바람에 왕궁 공개시간과 맞지 않아서 답사를 하지 못해 몹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날의 공식 일정을 변경하여 왓포 사원 답사 – 짜오 프라야 강에서 수상 버스 체험 – 현지식 저녁식사 순으로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왓포 사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지 가이드 분께서는 왓포 사원은 방콕에서 현존하는 사원들 중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16-17세기에 건설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상당한 크기의 구조물들과 규모를 자랑했고 건물의 외경에 금색과 빨간색을 더하여 화려함을 더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치면 대웅전과 같은 곳에 엄청나게 큰 금색 누워있는 불상이 있었는데, 이 불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이 후, 우리가 흔히 지리시간에 배워서 메콩강으로 알고 있는 짜오 프라야 강으로 걸어서 이동하여 수상 버스를 체험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 주변의 시가지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펜션 등을 봄으로써 방콕이 예상외로 상당히 발전한 도시임과 동시에 관광객들의 천국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원 앞에 몰려 있는 메기 떼가 있었는데, 태국 국민들은 불교 신자가 전체 국민의 90%가 넘는 만큼 사원 앞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이 후, 버스로 긴 이동시간에 걸쳐 현지식당으로 이동했고 현지식사 후 호텔로 이동하여 자유 시간을 가지며 첫 번째 날의 일정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 짜오 프라야 강

- 2일차(1월 9일)

▲ 타마삿 대학교에서의 강연

두 번째 날은 아주대학교의 공식 일정인 타마삿 대학교 방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8시에 호텔 로비에 집결하여 타마삿 대학교로 이동했고, 10시 30분 정도에 타마삿 대학교 교실에 입실하니 현지 교수님과 관계자 분, 그리고 타마삿 대학교의 학생들이 우리를 환영해주었습니다. 간단한 환영사와 교수님들의 소개가 있은 후, 우리는 곧바로 태국 문화체험의 주요 활동이었던 현지 학생들과의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모두 2가지였고, 토론을 위한 시간은 약 1시간 남짓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국과 태국의 유사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찾아보고 간 내용은 있었지만, 일단 현지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 모두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저의 주 전공인 역사, 그리고 다른 분들의 전공이었던 사회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바디랭귀지를 사용해가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동아시아의 협력은 필요한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와 내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결론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이 함께 참여한 협약, 조약, 단체들은 있지만, 동아시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 협력 단체가 부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서로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나름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지 교수님께서는 총 4팀의 발표를 경청해주셨고, "잘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경제, 역사 등)에 대해 다뤄주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토론회가 무사히 끝나고 약 1시간 정도의 점심식사 후 타마삿 대학교의 셔틀버스를 타고 캠퍼스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타마삿 대학교는 약 3만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그 학교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학부별로 건물이 마련되어 있어 공립학교로써 학생을 위한 국가의 사랑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의 슬로건인 "Tamasat for people"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현지 교수님들의 특강을 듣기 위해 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타마삿 대학교의 슬로건

총 두 분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태국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주셨습니다. 세세하게는 사람들의 문화부터 사회적 모습까지 비교해주시며 우리가 토론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언급해주셔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현대의 문제점, 그리고 태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는 교수님께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미디어와 시민 사회를 꼽으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의 정치상황 동안에 미디어에 많은 통제가 이뤄졌으며 현대에 와서 미디어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시민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미디어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순서에는 없었지만, 아주대학교의 또 다른 재학생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타마삿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과 우리와 같이 동행해주셨던 경제학과의 김한성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태국의 자세한 현지 사정은 굉장히 흥미로웠고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선 열린 시각,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 아시안 티크 정문

이 후, 공식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식당인 로얄드래곤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였고 아시안 티크로 이동하여 자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시안 티크에서 비로소 왜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방콕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풍의 깨끗한 거리와 값싼 의류, 상품들과 예쁜 야경은 우리 모두를 충분히 사로잡을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8시에 모두 집결하여 호텔로 이동했고 두 번째 날의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일차(1월 10일)

세 번째 날의 활동은 첫 번째, 두 번째 날보다 여유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10시까지 호텔 로비에서 모여 태국 왕족의 여름 별궁인 방파인 궁전을 보기 위해 출발했고, 날씨는 비가 조금씩 내려 선선했습니다. 방파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고 울창한 숲과 궁전들, 그리고 예쁜 구조물들이 태국의 왕족들의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후, 현지 식당으로 이동해 팟타이 등의 현지 음식들을 먹었고 다음 행선지로 왓 프라마하탓 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원은 막대한 유물의 사원이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으며, 13세기에 건립되어졌다는 가이드 분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했고 많은 불상들이 목이 잘린 채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을 품었고 질문한 결과, 가이드 분께서는 과거 미얀마와의 전쟁 때문에 사원이 많

▲ 왓 프라마하탓 사원

이 유실되었으며, 불상의 목이 모두 잘렸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 후, 두 번째로 15세기에 건립된 왓 프라시산펫 사원으로 이동하였고 상당한 규모의 사원을 둘러보며 태국이라는 나라의 불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고 지금도 대단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원 역시 18세기 미얀마와의 전쟁으로 많이 손실되었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당시 손실되었던 문화재들과 비슷하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선셋 보트를 탔지만, 비가 왔고 하늘이 흐려서 일몰을 구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셋 보트 탑승 후, 태국의 대표 여행자 거리인 카오산로드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자유 시간을 가지며 현지 음식과 현지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유귀가를 선택했고 저 역시 그렇게 귀가하여 3일차를 재밌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일차(1월 11일)

▲ 담넌사누억 수상시장

네 번째 날은 주로 현지 국민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첫 번째로 현지인들이 시장을 이루고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위험한 기찻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쉽게도 기차가 와서 현지 상인들이 시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찻길을 사이에 두고 시장을 형성했다는 점이 그리고 현지 시장이 자연스레 관광지가 되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시장이라기보다는 현지인들을 위해 고기, 해물 등의 생활필수품들을 판매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 후, 담넌사누억 수상시장으로 이동하여 배를 타고 현지에 생겨난 수상시장을 체험해보았습니다. 가이드 분께서는 예전에는 그 명맥을 이어서 정말 현지인들이 이 시장을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에는 관광객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모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현지 쇼핑몰로 이동해 MK수끼라는 태국 정통 샤브샤브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간단히 기념품을 사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후, 태국 최대의 쇼핑거리이자 젊은이들의 거리라 불리는 씨암스퀘어로 이동하여 인프라를 구경함과 동시에 기념품을 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현지에서 저녁식사 후, 방콕 수왓나폼 공항으로 이동하여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 참여소감 및 향후 계획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단순히 관광을 하고 와야지"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알차게 짜인 현지 인프라 답사 및 현지 대학교와의 교류는 제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알찬 특강, 그 과정에서 느꼈던 그리고 깨달은 점들은 제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은 바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한발 더 멀리 내다봐야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해답이 틀릴지라도 반면교사하고 극복해 나아가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대해 그리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못사는 나라"라는 편견이 강했고 선진국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대주의적 성향도 약간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동남아시아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국가이며, 방콕이라는 도시가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로써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점을 통해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며 이번만큼은 저의 편견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취업할 나이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취업을 생각한다면 해외취업이라 한들,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의 취업을 꿈꿨습니다. 문화체험은 그동안의 저의 색안경을 나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 도태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도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 취업이 힘든 요즘 시기에 동남아로 진출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지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타마삿 대학교 특강에서 만난 창업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나 관련 전공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동남아에서 펼쳐져 있었고 개척된 곳도 적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개척된 곳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제약이 심하다는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훗날의 저의 계획에 크나큰 양분이 될 경험임은 의심치 않습니다.

3. 프로그램 주관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재미도 있고 유익한 문화체험이었습니다. 비록 일정이 조금 빡빡하여 몸이 고되었지만, 이러한 여행에 와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태국의 상징인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그리고 새벽사원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에 매우 컸습니다. 또한, 현지 교통소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짜게 되어 시간이 밀리고 그로 인해 계획이 자꾸 수정되어 일정표가 무색해진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쉬웠지만, 이 점만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큰 탈이 없이 문화체험이 끝나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침에 호텔에서 모일 때나 매 장소에서 모일 때, 늦는 사람이 있어서 현지 가이드 분께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점만 뺀다면 이번 문화체험은 서로서로에게 아주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태국 문화체험에 가시는 분들이 제 문화체험 결과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상대 학교와의 토론에 대해 조금 더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왔지만, 구체적으로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짧은 토론 시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영어로 토론 주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시거나 자료를 찾아가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